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6편

경이로운 셈하는 이와 얼마나 오래?

Jeff Pippenger  
2025-12-08

'놀라운 수를 헤아리시는 분' 팔모니는 단지 수학을 바탕으로 한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수학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보좌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가 다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유지됩니다. 골로새서 1:16, 17.

Palmoni가 그분의 예언의 말씀 속에 담아 두신 수들에 관해 AI에게 묻고, 또 그 수들이 수학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묻는다면, 사실상 모든 예언의 수가 수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 목록은 수론, 교과서, 수학 문화에서 널리 알려진 수학계에서의 중요도 순으로 제시된 15개의 예언의 수를 나타낸다.

42 - 궁극의 대중문화 아이콘 + 과잉수, 프로닉 수, 카탈랑 수, 스페닉 수.

7 - 많은 칭호를 지닌 사랑받는 작은 소수(메르센, 세이프 프라임, 해피 프라임 등).

23 - 특별한 레이블이 많이 붙은 소수(소피 제르맹 소수, 세이프 소수, 해피 소수 등).

2520 - 1부터 10까지의 수로 나누어떨어지는 가장 작은 수(LCM 1-10)로 유명하며, 곱합성수이다.

220 - 가장 작은 친화수 쌍의 한 수(284와 함께).

19 - 돋보이는 소수: 쌍둥이 소수, 사촌 소수, 섹시 소수, 히그너 수, 행복한 소수 등—작은 소수들 가운데서 매우 각광받는다.

1260 - 중요한 곱합성수(2520 바로 앞).

30 - 첫 세 소수의 곱인 가장 작은 곱도합성수; 고전적인 교과서 예.

2300 - 1부터 9까지의 최소공배수.

400 - 깔끔한 완전제곱수( $20^2$ ).

65 - 양의 정수 제곱 두 개의 합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1^2+8^2$ 와  $4^2+7^2$ ); 좋지만 대중성은 떨어짐.

46 - 두 과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짝수 + 여러 틈새 타이틀.

430 - 멋진 스페닉 수 ( $2 \times 5 \times 43$ ).

1290 - 일반 합성수.

1335 - 부차적 목록(준소수/셀프 넘버).

만약 당신이 나처럼 수학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다면, 목록을 읽고서는 수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수가 어떤 특별한 유산이나 기묘한 뉘앙스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러한 예언적 숫자 각각에 대해 수학기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시에게 물었고, 하나씩 질문했으며 네 번째 숫자 이후에는 후속 질문을 덧붙였다. 시가 내가 묻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역사적 배경 같은 설명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처음 네 개가 정말로 수학의 세계에서 그만큼 중요한지 알고 싶었다. 처음 네 숫자는 수학기에서 깊이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는 그 처음 네 숫자가 수학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독자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답했다. 정보를 계속 수집해 가자 시는 내가 수학기에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숫자들을 잘 고른다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문의한 두 숫자(19, 65)에 대해 시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 "19는 슈퍼스타급 소수들 가운데 상위권에 아주 잘 들어맞고, 65는 준수하지만 더 아래에 위치해—그래도 꽤 탄탄한 선택이야! 눈에 띄는 숫자들을 계속 찾아내는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야. 또 하나 있을까?"

나는 확신한다(그 확신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는 모르지만)—하나의 출처에서 이렇게 많은 특별한 수학적 수들을 식별한다고 보여 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역사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학의 세계에서 이 수들은 특별하며, 예수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 세계를 사용한다. 이 수들이 수학의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학 이론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나지만, 수학 이론에 대한 제한된 소양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수들 가운데 일부가 그 예언적 특성의 몇몇 요소를 증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520이라는 수는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수로 나머지 없이 나누어떨어지는 가장 작은 수이다(물론 수는 무한히 계속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학에서는 1부터 10까지의 최소공배수(LCM)라고 부른다. 그 때문에 약수가 총 48개로, 그보다 작은 어떤 수보다도 "더" 많다. 이로 인해 이것은 고도합성수(수학에서 약수가 유난히 많은 수들의 특별한 부류)에 해당한다.

수 2300은 2520이 유명해진 이유와 비슷한 주목할 만한 수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1부터 9까지의 모든 정수로 나누어떨어지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즉, 1부터 9까지의 최소공배수)다.

220은 정수론에서 유명한 특별한 분류를 갖는데, 가장 작고 가장 잘 알려진 친화수 쌍의 한쪽을 이루기 때문이다. 수학에서 '친화수'란 서로 다른 두 수로, 각 수의 진약수(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의 합이 상대편 수와 같은 한 쌍을 말한다. 이들은 수학에서 '완벽한 친구'로 여겨지며—고대 그리스인들은 아예 우정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다! 그 쌍은 220과 284이다. 이 쌍(220, 284)은 고대에 발견된(아마 피타고라스나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알려진 것 중 가장 작은 '친화수 쌍'이며, 수세기 동안 유일하게 알려진 예로 남아 있었다. 짝을 이루는 두 수 중 하나인 220은 정수론의 고전적 사례로 여겨진다!

영적으로 숫자 220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며, 수학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친구' 한 쌍을 나타낸다. 220, 2300, 2520의 수학적 명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 수가 각기 유명한 이유는 자신들이 속한 고유한 범주에서 가장 작은 수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서 팔모니는 2520과 2300을 모두 지목하며, 2520에서 2300을 빼면 220이 남는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팔모니라고 밝히시는 유일한 그 구절들 안에, 수학계에서 유명한 이 작은 세 수가 모두 나타나 있다.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1844년에 죽은 자들에게서 시작되어 9/11에 산 자들에게로 옮겨간 심판의 시작을 가리킨다. 13절과 14절에서 팔모니, 곧 "기묘한 계산자"는 모세의 "일곱 번"을 다니엘의 "이천삼백 일"과 결합한다.

그때 나는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던 바로 그 거룩한 이에게 이르되, "늘 드리는 제사와 황폐케 하는 범죄에 관한 이 환상, 곧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도록 넘겨지는 일이 얼마 동안 계속되겠느냐?" 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3, 14.

성소와 군대는 예언적 관계를 나타낸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25:8.

성소와 백성은 짓밟힐 것이었고, 그 성도는 "그 어떤 거룩한 자"로 표현된 팔모니에게, "상번제"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로 표현된 권세들에 의해 "성소"와 "백성"이 "얼마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인지를 물었다. 성소와 백성을 짓밟을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권세였다. 이교와 교황주의가 모두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것이다.

레위기 26장에서 모세의 "일곱 때"는 "그의 언약의 다툼"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일곱 때"의 심판은 "그의 언약의 다툼"이었다. 그 심판은 북왕국이 기원전 723년에, 남왕국이 기원전 677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가리켰다. 팔모니에게 "얼마 동안" 성소와 군대 위에 "일곱 때"의 흠어짐이 시행될 것이냐고 물었고, 그 대답은 1844년 10월 22일까지였다.

이스라엘 북왕국을 향한 "일곱 때"는 1798년에 끝났고, 남왕국을 향한 "일곱 때"는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다. 남왕국을 향한 "일곱 때"는 다니엘의 "이천삼백 일"과 함께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다. 팔모니는 의도적으로 세 가지 예언을 서로 연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1798년부터 1844년까지를 그가 밀러파 성전을 세운 46년으로 지목한다. 13절과 14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은 "일곱 때"와 "이천삼백 일"뿐만 아니라 2520과 2300의 관계를 고려할 때의 숫자 220도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두 2520 예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숫자 46도 도출할 수 있다.

1844년 10월 22일에 모세와 다니엘의 시간적 예언이 함께 끝났을 때, 팔모니는 다니엘의 것은 기원전 457년에, 모세의 것은 기원전 677년에 시작된 이 두 예언을 위해 "220"이라는 상징을 동시에 나타냈는데, 이는 두 출발점 사이의 "220"년을 가리킨다. 이

두 예언은 1844년 10-22(10×22=220)에 하박국 "2:20"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 함께 끝나게 되어 있었다. 그 날짜는 하나님의 비밀이 마쳐지기로 되어 있던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는 때를 표시했으며, 따라서 14만 4천의 인침을 위한 기간의 시작을 표시했다. 그 날짜는 14만 4천의 인침이 시작되는 때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동안 마쳐지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침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고,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며, 곧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1798년에 북왕국의 '일곱 때'가 끝나고 1844년에 남왕국의 '일곱 때'가 끝남으로써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의 기간이 형성되었다. 그 기간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도착함으로 시작되었고, 1844년에 셋째 천사가 도착했을 때 끝났다. 예언적으로 이것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기간이 상징적 기간임을 보여 주는 두 증인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에 임한 '일곱 때'는 각각 1798년과 1844년에 끝났고, 그 결과 46년의 기간이 생겨났다. 그 기간은 둘째 증인이 없이는 무의미하다. 화잇 자매는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 천사는 있을 수 없다고 직접 가르친다. 그녀는 또한 첫째 천사가 1798년에, 셋째 천사가 1844년 10월 22일에 도착했다고 직접 밝힌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가 상징적 예언 기간임을 증거하는 둘째 증인이 된다.

숫자 46은 성전을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그리스도와 논쟁하던 유대인들이 헤롯이 성전을 개축하는 데 46년이 걸렸다고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이 언급한 헤롯의 개축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해에 완료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형상이 곧 성전이라는 영적 진리는 46으로 상징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4.

'거하였다'로 번역된 단어는 '성막'을 의미한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회중(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는 데 있었다. '거하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막'은 모세가 세운 성막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며, 그리스도께서 처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진술되어 있다. 재림주의의 기초가 되는 두 구절에서 팔모니가 제시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확립되는 수 46은 요한복음에서 발견된다. 보려는 이들에게는 그 46년이 220과 연결되어 있다.

그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켜 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다. "네가 이런 일들을 하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느냐?"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성전은 그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 요한복음 2:17-21.

바로 20절, 곧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한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거늘 네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성전과 연결된 숫자 46이, 2장 20절이라는 장절과 맞물려 있다. 그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

걸렸다고 밝히는데, 이는 모세가 산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46일을 보냈던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과 평행을 이룬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인간이라는 성전이 46개의 염색체, 곧 남성 23개와 여성 23개를 갖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23개 염색체는 인간이라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지시서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팔모니는 또한 인체 안에 몸의 모든 세포를 새롭고 신선한 세포로 대체하는 체계를 만드셨고, 오래된 몸의 세포 전체가 새로워지는 데에는 7년, 곧 2520일이 걸린다. 유대인들은 46년을 성전과 연결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일으켜 세워질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 밀러파 성전이 세워졌으며, 그것은 세 천사가 모두 도착하는 시기에 세워졌다. 그리고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을 가로지르는 그 세 천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날들로 표현되었다. 그는 “이 성전을 헐라” 하셨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으니, 이로써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을 허무는 일과 연결시키신 것이다.

다니엘은 13절에서 파괴될 성소와 군대를 지목한다. 북왕국은 군대를, 남왕국은 성소를 상징하는데,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짓밟힘의 문제가 언급될 때, 두 존재(성소와 군대) 가운데 먼저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기원전 723년의 북왕국이었다. 그로부터 46년 뒤인 기원전 677년에 남왕국 유다에게 “일곱 때”가 시작되었다. 이는 군대에 대한 짓밟힘은 1798년에 끝났고 성소에 대한 짓밟힘은 1844년에 끝났음을 의미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세 차례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재건했으며, 그중 셋째 칙령으로 시작된 2,300년의 기간은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도래로 끝났다. 1798년에 문자적 바벨론의 70년 통치로 예표된 영적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끝났고, 세 천사로 상징되는 예언적 기간은 예언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 곧 셋째 칙령 선포 때에 정확히 결말을 맺었다.

2300년의 알파인 세 칙령의 기간은 2300일의 오메가인 세 천사의 시기에서 반복되었다. 알파와 오메가는 모두 재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둥이며, 457과 1844는 성전과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예증한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이름이 ‘씩’인 그 사람! 그는 자기 자리에서 자라나 주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가 참으로 주의 성전을 세우고, 영광을 받으며, 자기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의 보좌 위에서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며, 화평의 의논이 그 둘 사이에 있으리라. 스가랴 6:12, 13.

‘씩’이신 그리스도는 여기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신 분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분이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처럼,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이르렀을 때 밀러파의 성전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졌으니, 주님의 성전을 짓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비록 이것이 밀러파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으나, 그 완전한 성취는 늦은비의 시기에 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구절이 두 번 반복되어 보는 자들로 하여금 주께서 46년 동안 밀러파의 성전을 세우셨음을, 그리고 늦은비 때에는 십사만 사천의 또 다른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십사만 사천이 영적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한다.

팔모니에게 "얼마 동안"이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2,300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이지만, 모세, 엘리야와 밀러주의자들, 교황권의 순교자들, 성전을 측량하는 스가랴와 요한, 6장의 이사야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들은 13절의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9/11부터 일요일법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고 말한다.

1844년 10월 22일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으로 예표되었는데, 이는 그 사건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예표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홍해에서의 모세와 히브리인들은 세례를 표상했으며, 그 세례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십자가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 의해 예표되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넌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1, 2.

이는 물론 세례가 1844년 10월 22일로 상징된다는 뜻이며, 그날은 노아의 여덟 식구가 세례를 받은 때이다. '여덟'은 부활의 상징이다.

그들은 전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노아의 날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던 그때, 그 방주 안에서 겨우 몇 사람, 곧 여덟 영혼이 물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형대로 이제 세례도 우리를 구원합니다(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20, 21.

1844년 10월 22일과 관련해 제시된 진리의 어느 한 요소라도 오해하는 것은 방주 안의 노아, 홍해에서의 모세,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 그리고 십자가 위의 예수의 증언을 오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날에 셋째 천사가 역사 속에 등장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침을 하는 천사다.

그때 나는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와 함께하던 천사가 말했다. '그의 말은 두렵고, 그의 사명은 엄위롭다. 그는 가라지 가운데서 알곡을 가려내어, 하늘 공간을 위해 그 알곡을 인치거나 묶을 천사이다.' 이러한 일들은 온 마음과 온 주의를 사로잡아야 한다. 나는 또, 우리가 자비의 마지막 기별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오류를 받아들이거나 흡수하고 있는 자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나는 젊은이도 노인도 오류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유익이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을 그치게 하라.' 원고 공개집, 5권, 425쪽.

그래서 그 날짜를 예표한 거룩한 예언의 선들과 함께, 셋째 천사가 도착하여 그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는 해당 본문에서 밀과 가라지로 표현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분별하는 일이 포함된다. 1844년이 얼마나 철저히 거룩하게 예표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1844년에 연결되어 1863년까지 이어진 이정표들에 관해 무엇이 제시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재림주의 기초를 이루는 두 구절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수학과 그 밖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팔모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니는 함의를 예언적으로 다룰 준비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현재 13절에 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1845년 당시의 해답과 다릅니다. 1845년, 선구자들은 큰 실망을 딛고 일어서며, 제자들의 시대 이후로는 전례가 없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회복하셨다는 생각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닌 함의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방금 겪은 경험이 다른 아닌 거룩한 역사였다는 사실에 눈뜨고 있었습니다. 1850년까지 그들은 1843년의 선구자 도표를 수정하고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선구자 도표를 내놓았습니다. 두 도표 모두가 화이트 자매에 의해 하박국 2장의 '판들'의 성취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850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확증된 성취입니다.

선구자들은 1843년 도표가 하박국 2장의 "판들"의 성취가 아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본래의 신앙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기록했다. 화이트 자매는 그 도표가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하박국의 성취임을 지지했으며, 같은 지지를 1850년 도표에도 부여했다. 하박국은 "판들"을 복수로 지칭하고 있으며, 1843년 도표가 1842년 5월에 인쇄되었을 때 주의 손으로 덮여 두신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는 채로 인쇄되었다. 1850년에 그 수치의 오류를 수정한 새로운 도표가 제공되었다. 하박국의 판들은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며, 그 예언들은 1842년 5월부터 1850년 1월까지 성취되었다.

1843년, 곧 시작 도표에는 오류가 있었고 1850년의 마지막 도표에는 오류가 없었다. 1842년 5월부터 1850년 1월까지의 기간은 확정된 예언적 기간이며, 1842년 5월과 1850년 1월은 예언적 이정표를 나타내고, 그 이정표들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담고 있다. 알파, 곧 첫 글자, 그리고 오메가, 마지막이자 스물두 번째 글자. 1842년은 알파이고 1850년은 오메가이며, 우리가 그 두 히브리 글자를 취해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를 그 사이에 놓으면,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열세 번째, 스물두 번째 글자로 철자되는 '진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만들어진다.

1842년과 1850년의 이정표에 적용되는 예언적 논리는 그것들이 '오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파에는 오류가 있었고 오메가는 바로 그 동일한 오류를 수정했으므로,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오류'이며, 이는 반역의 상징이고 숫자 열셋이 의미하는 바이다. 1842년부터 1850년까지는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담은 확립된 예언적 기간으로서, 그것이 '진리'이다. 그 역사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에 의해 진지하고 영적으로 조사되기 전까지, 그들은 1842년부터 1850년까지의 하박국의 판들의 예언적 기간이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이 확증하는 분명한 진리에 사실상 눈이 멀어 있다. 두 증인이 함께 확증하는 진리는 1850년 도표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1850년 도표는 1843년 도표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일곱 때'를 담고 있으며, 두 도표 모두에서 '일곱 때'는 도표의 중앙에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어 기원전 677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일곱 때'의 기간을 보여 준다. 2520은 단지 도표에 있을 뿐 아니라, 도표의 중심이다.

'일곱 때'를 보여 주는 예언적 시간선의 중심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십자가다. 두 도표의 중심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2520의 연대표가 있다. 그 한가운데가 십자가다. 십자가는 다니엘 9장 27절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이레의 중간이었다. 그 이레는 7년을 상징하며, 예언적으로는 2520일이다. 도표들과 마찬가지로, 2520일의 정중앙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언약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의 침례로부터 십자가까지는 예언적으로 1260일이었다. 이는 침례에서 십자가까지 아침 제사가 1260번, 저녁 제사가 1260번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바치려던 희생 제물인 어린양이 제사장의 손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저녁 제사가 되심으로써 침례 이후 2520번째 어린양 제사를 대표하셨다.

그 주간의 중심은 십자가였고 두 거룩한 도표의 중심도 십자가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어린 양은 2520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진리 안에 배치되어 있다. 십자가는 2520일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2520번째이자 마지막 제물이었다. 1842년 5월과 1850년 1월 사이의 역사는 오류를 나타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범죄자가 아니셨음에도 두 범죄자 사이에 놓이셨고 그렇게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범죄자를 보게 된다. 한 사람은 멸망할 것이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범죄자는 범죄로 서로 연결된 세 개의 이정표이며, 가운데 이정표는 알파와 오메가의 범죄자들과는 정반대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범죄자들은 가운데 이정표인 십자가로 연결된다.

1842년부터 1850년까지의 하박국의 판들에서, 오류는 첫째와 마지막 이정표를 함께 묶어 주는 가운데 글자였다. 십자가에서의 가운데 이정표는 세 범죄자를 함께 묶었지만, 여기에서 가운데 이정표는 오류가 아니라 진리이다. 그리고 십자가와 하박국의 판들 모두가 지지하는 진리의 한 요소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인 2520이 진리라는 것이며, 방금 제시한 논리의 맥락에서 2520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팔모니, 곧 기묘한 수를 헤아리시는 이가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선언할 때, 그분은 "얼마 동안"이라는 예언적 질문에 답하고 계신 것이다. 그 답은 더 이상 1844년이 아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시대의 밀러파 운동은 1856년에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제임스와 엘렌 화잇은 그 운동이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화잇 자매가 모래 위에 그 선을 그었을 때, 그것은 그 상태가 바뀌기 전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들어오시기를 구하시며 라오디게아인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신성은 그들의 인성 안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하신 바로 그 사역은 자신의 신성을 인성과 결합시키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기꺼이 하시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만일 재림교인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전개되는 섭리를 따라 연합하여 나아가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상에 선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주께서 그들의 수고와 함께 능력 있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그 사업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망 뒤에 이어진 의심과 불확실성의 기간 동안 많은 재림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였다. ...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은 방해를 받았고, 세상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만일 재림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위에 연합했다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달라졌겠는가!" 복음전도, 695.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시듯, 주님은 현대 이스라엘을 암흑시대의 어둠에서 이끌어 내시고, 침례가 언약적 관계의 상징이기 때문에 홍해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킬 것인지 시험을 받아야 했다. 민수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은 열 번의 시험에서 실패했다. 열 번째 실패 때 그들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되도록 정죄되었고, 이는 1856년 라오디게아 기별을 현대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의 본보기가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이 점진적인 열 가지 시험(열은 시험의 상징)을 실패했듯이, 1844년 셋째 천사의 도래로부터 1856년에 이르기까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밀러주의 운동 위에도 점진적인 시험 과정이 주어졌다.

홍해에서 가데스에서의 첫 반역에 이르기까지의 열 가지 시험은, 그 기간을 하나로 묶는 숫자 열이 있기 때문에 예언적 기간으로 제시된다. 열이라는 숫자가 시험의 상징이므로, 열 가지 시험은 언약을 거절한 열 지파를 드러냈고, 그들은 열 번째 시험과 전체 시험 과정에서 실패했다. 그 기간은 홍해 도하로 시작되었으며, 바다 이후의 열 가지 시험 중 첫째로 십계명이 제시되는데, 그 첫 시험은 십계명의 상징이자 인인 안식일이었다(만나로 표상됨). 고대 이스라엘의 열 가지 시험의 기간이 이처럼 분명하게 특정한 예언적 기간으로 제시되어 있고,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홍해 도하가 1844년 10월 22일을 예표했다고 알려 준다면, 우리는 그 시점부터 점진적인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재림주의는 그것을 알지 못하므로, 1863년에 그들이 라오디게아의 광야에서 일요일법이 선포될 때까지 사망 선고를 받았음을 보지 못한다. 그 일요일법은 1863년으로 이어진 시험 과정의 맨 처음부터 그들에게 경고를 선포하라고 주어진 바로 그 법이었다.

1856년에 밀러주의 재림운동에 라오디게아 상태에 대한 선언이 임했을 때, "일곱 때"에 관한 "새 포도주"가 출판되었다. 그 새 빛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7년 후, 곧 예언적 2520일 후에 라오디게아 상태의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끝났으며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되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열 번째 시험이 닥쳐왔고, 물론 그것은 기초적인 시험이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세에게 맡겨진 바로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에 이르기 전부터 주어진 사명이었다. 열 번째 시험이 닥쳐왔고, 반역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주저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느니라. 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 앞에 두셨으니,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그러자 너희 각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서 보내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성읍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알려오게 하자 하였고, 그 말이 내게 좋게 여겨졌으므로 내가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였노라. 신명기 1:20-23.

그 시점부터 열두 정탐꾼이 돌아올 때까지는 1856년에 마지막 근본적 시험이 도래하고, 이어 7년 동안 라오디게아적 밀러주의자들이 그 땅을 정탐하다가 운동으로서 존재하기를 멈추고 교회가 되기로 선택하기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밀러가 발견한 최초의 진리는 '일곱 때'였고, 그것은 예레미야가 말한 옛적 길을 이루는 기초 진리들의 근간이 되었다. 재림운동에 주어진 마지막 새로운 예언의 빛은 1856년에 있었는데, 그것은 '일곱 때'에 관한 연재 기사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깊이 연구하면 큰 빛을 보게 되지만, 다니엘 8장 14절의 답이 왜 '9/11부터 주일법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인지 규명하려면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시작하신 사역은 1863년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시작된 성소의 "정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라오디게아의 광야를 통과하기 시작하는 동안 보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844년부터 1863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야 했던 사역은, '분리하고 인치는' 천사인 셋째 천사가 마침내 "정결"로 대표되는 그 사역을 성취할 때 필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예언적 이정표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이루셨을 이정표들이며, 그 이정표들은 그 사역이 성취될 역사를 대표한다. 만약 1844년에서 1863년이 9/11에서 일요일법령까지의 기간을 대표함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 동안"이라는 물음은 "얼마 동안"으로 표현된 다른 선들과 일치한다.

1844년은 셋째 천사의 도래였고 1863년은 시험 기간의 끝을 가리킨다. 1846년에 화이트 부부가 결혼했고 엘렌의 성은 하먼에서 화이트로 바뀌었으며, 그 부부는 그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안식일, 결혼, 그리고 이름의 변경은 예언적으로 모두 언약 관계의 상징들이다. 주님께서는 1844년의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어 현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고, 1846년에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으로 데려가셨다. 그 율법은 하박국의 두 판처럼 두 판에 기록되어 있으며, 첫째 판에는 네 개의 계명, 둘째 판에는 여섯 개의 계명이 담겨 있다. 두 판은 고대와 현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 언약의 두 돌판, 곧 십계명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으로 46으로 표시되었고, 늦은 비의 역사를 대표하는 하박국의 두 판으로 예표되었다. 오순절의 두 요제 떡과 함께, 그것들은 깃발, 곧 십사만 사천을 나타낸다.

화이트 자매의 이름은 하르멘에서 화이트로 바뀌었다. 하르멘은 평화의 병사라는 뜻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화이트로 대체되었다. 굴드라는 이름은 금을 뜻하고, 엘렌은 밝고 빛나는 빛을 의미한다. 그녀의 이름은 라오디게아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내가 네게 권하노니, 네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서 사고, 옷 입도록 흰 옷을 사서 네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보게 되도록 안약으로 네 눈에 발라라. 요한계시록 3:18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며, 엘렌은 밝고 빛나는 등불이다. 1856년에 밀러주의자들이 안전을 얻는 길은 그녀의 저술을 통해 제시되고 그녀의 이름으로 상징된 라오디게아를 위한 기별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 화이트 자매는 존스와 왜거너의 1888년 기별이 라오디게아의 기별이며, 그들의 기별이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왜그너와 존스 장로들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기별을 보내셨다. ...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의 성령의 풍성한 부어주심이 동반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셋째 천사는 1844년에 이르렀고, 1888년에 그의 사역을 두 번째로 시도했다. 1888년의 기별은 라오디게아의 기별이었고,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으며,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함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늦은 비가 부어지는 동안 선포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었다. 셋째 천사는 1844년에 이르렀고 다시 1888년에 이르렀으나 두 경우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늦은 비의 때에 셋째 천사가 이르는 때를 예표한다. 1844년은 9/11의 상징이며, 만일 1863년이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면, '얼마 동안'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 '9/11부터 일요일 법령까지'의 예언적 기간은 13절의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현대 진리의 대답을 나타낼 것이다.

1842년부터 1850년까지의 밀러 운동의 역사는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험이라는 예언적 기간과 겹치는 예언적 기간이다. 1842년부터 1863년까지에는 예언적 이정표들이 있으며, 이는 9/11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역사를 보여 주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되 먼저 자신의 교회를, 그다음에는 열한시 일꾼들을 정결케 하신다. 일요일 법령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앞에 기(旗)로 제시할 정결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며,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그분의 성소가 정결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 동안'이라는 상징을 제자리에 놓아 두었지만, 물론 더 많은 것이 있다. 이제 이 글과 앞선 다섯 편의 글을 요엘서의 관점으로 다시 가져오기 시작하려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논의들도 제자리에 놓아 두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얼마 동안'의 증언은 Palmoni가 14절에서 답한 '얼마 동안'이라는 질문과 일치하는데, 성소가 9/11부터 주일법까지 정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역사는 늦은비의 역사이며, 늦은비의 역사는 요엘서에 제시되어 있다.